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4월 15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속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자주의 혁명로선, 자력갱생의 혁명방식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거창한 창조와 건설의 새시대를 수놓으시며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필승의 신심드높이 견인불발의 과감한 투쟁을 벌려 뜻깊은 태양절을 비상한 정치적열의와 자량찬 로력적성파로 맞이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중앙보고대회 개최가 선언되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무궁할것이다》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1912년의 4월 15일이 있어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고 인민이 누리는 존엄과 영광, 행복이 있다는 진리가 세대는 바뀌어도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더욱 절절하게 새겨지고있다고 하면서 한평생 인민과 운명을 같이 하시며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시고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만고의 업적을 자자손손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 변함없이 줄기차게 나아갈 때 우리 국가가 그 어떤 고난과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인민의 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천하제일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리라는 것이 김일성조선 110년의 빛나는 총화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하신 한생이 응축되어있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유산

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는 조선로동당의 리상이 완벽하게 실현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진군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중앙보고대회에 이어 《빛나는 조국》의 숭엄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평양시

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경축광장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상징인 공화국기를 대형기폭으로 펼친 시위대렬이 들어섰다.

사회주의조선의 거룩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시위대렬이 들어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풍선이 날아올랐으며 광장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시위군중들은 한평생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자주, 자립, 자위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창조와 변혁으로 총만된 조국번영의 일대 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에 대한 열화의 칭송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에 담아 터쳐올리였다.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진함을 모르는 필승의 힘과 투쟁의지를 안겨주시고 신념의 역센 기둥을 세워주시는 혁명의 대성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심이 경축의 광장에 격류되어 굽이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과 국가를 충성의 일원단심과 혁명적기개로 받들어가는 미더운 인민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격려해주시였다.

(2면으로 계속)

